

##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주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for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신화경\*                      조인숙\*\*  
Shin, Hwa-Kyoung        Jo, In-Soo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evaluation about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s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We executed the survey to find 1) the evaluation of local community as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2) the usage and satisfaction of the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s, 3) the improvement of local community as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The method was a resident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married men and women with children liv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It was more satisfactory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family-friendly elements than residential environment without family-friendly elements in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The children care facilities was used higher.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 for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was not satisfied.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 for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was needed higher. The representatives as leading role was local community and residents in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 :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Local Community, Evaluation

주요어 : 가족친화, 주거환경, 지역사회, 평가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전후하여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 등 급속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산율은 1972년 4.14명에서 2000년 1.47명, 2011년 1.24명으로 감소하고(통계청, 2011),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 2010년 11.0%로 꾸준히 증가하여(통계청, 2010),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2012년 현재 50.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155)로 절반이상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핵가족율은 2010년 현재 61.6%

(통계청, 2010)로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 내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성의 취업 증가와 점차 가족구성이 핵가족화됨에 따라 가족 돌봄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에서 자녀 돌봄과 노인 돌봄 등 가족 돌봄의 주책임자는 주로 여성으로 취업여성 뿐만 아니라 비취업 여성에게도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한국여성개발원, 2005), 여성의 돌봄 역할 분담에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자녀양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노인 부양은 노인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해 가족 돌봄에 대해 사회적 조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조력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불신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꼽고 있다(통계청, 2011). 노인 부양에 대해서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8.7%인 것에 비해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4.0%(서울시, 2013)로 노인부양에 대해 사회공동책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문제로서 가족 책임하에 수행되던 가족 돌봄의 문제가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자녀 양

\*정회원(주저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정회원(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Insook Jo, Dept. of Consumer & Housing, Sangmyung Univ. 7 Hongji-dong, Jongro-gu, Seoul, 110-743, Korea. E-mail: anetjo@naver.com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육 및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사회의 공동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노력 및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노력 및 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고, 자녀 양육 및 가족 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 제공을 위해, 2007년 12월 14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제처, 2012). 일련의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노력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구축 및 가족친화지수,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을 포함한 지역사회 개선으로 가족친화마을 환경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친화 관련 정책은 주로 가족친화 경영, 기업, 가족친화 제도 등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인간의 주요 생활환경인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환경이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개별 단위 주택을 포함하여 이웃 및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윤정숙·이경희·홍형욱, 1998)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가족친화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바람직한 가족친화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Park, 2010). 모든 세대가 각자의 삶을 조화롭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며, 가족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기보다 가족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및 국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돌봄 체계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하며(Cha, 2010),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동행하여 우리사회의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조한혜정, 2006). 이런 사회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활에 밀거름이 되는 주거환경을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 국가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 중심의 주거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주거환경 측면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현재 지역 커뮤니티를 평가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인프라 시설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이를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향후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파악하고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주도적 역할 담당자를 파악한다. 이를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로,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연령의 자녀를 둔 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010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169부를 회수하여(회수율 67.6%), 이중 결측 자료를 제외한 총 16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평가를 위해,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와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여성취업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보건복지부(2009)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에서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은 ‘돌봄’지원과 ‘여가문화’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본 연구의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런 기준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를 추출하고, 추출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전문가 4인에 의해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또한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필요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와 필요도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계수가 0.96, 0.93 등으로 문항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둘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여성취업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주도적 역할 담당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18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등 단순분석과 교차분석, t-test 등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Cronbach's  $\alpha$  계수가 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Wikipedia, 2013).

## II. 가족친화 주거환경 개념과 특성

### 1.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개념 및 요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과 제4항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말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마을 환경이란 ‘노인부양과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의미한다(법제처, 2012).

가족친화환경은 가족구성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간 환경으로 이용자인 가족의 다양한 요구가 존중되고 가족들의 활동을 촉진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Park et al., 2009). 가족친화 지역 커뮤니티란 가족 책임을 수행하고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커뮤니티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성인, 노인 등 모든 세대의 구성원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일과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여가를 함께 즐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가족친화환경에 대해 여성가족부(2006)는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어 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요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에 대해 조한혜정(2006)은 여성이 가정 내에서 떠맡아 오던 역할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구성원들 각자에게 행복한 공간이란 가족 공통의 기쁨으로 환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돌봄 공동체를 통해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ha(2010)는 가족친화마을은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 돌봄을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이며, 좀 더 나아가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통해 미래세대의 질적인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해가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 주거환경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그동안 가족의 책임 하에 있었던 가족 돌봄을 가족만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환경, 가족 친밀감을 증대를 위한 환경, 가족의 다양한 구성원의 여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Table 1. The Concept of the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Author (Year)	Concept
Legislation (2012)	The environment is that family support, such as child care and elderly care in the community. Various family members need to meet in space equipped living conditions of families in the village environment
Park, S. et al 4(2009)	Satisfies the needs of family members and the space environment for the happy family. The space is to respect for the diverse needs of the family, to promote the activities and to form of the family closeness
Gender Equality (2006)	It is provided the facilities and space for various family members. Changed needs of family members as the life cycle are continuously supported for the environment in community
Jo, H. (2006)	The family-friendly environment is the role of woman in the home to be shared with community
Cha, S. (2010)	Various family members share the family caring for the local community. Residents of different generations can be kept comfortable space and relationship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요소로 강성태(2007)는 다양한 형태와 계층의 가족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책임(부부생활, 임신, 육아 등의 아동양육과 고령자 등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돌봄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물적 조건(시설, 설비, 물리적 환경 등)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평온하고 쾌적한 가족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가족친화적 지역 커뮤니티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환경 계획 요소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요소로는 아동양육 및 노인부양 등 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과 프로그램과 가족 및 개인의 여가증대와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요소는 아동양육 및 가족 부양 등 가족 돌봄의 역할이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하고 공간 환경 이용자인 가족의 다양한 요구,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을 위해 가족의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커뮤니티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즉, 가족의 다양한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과 이를 연계해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오픈스페이스 확충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요소는 개인의 삶의 질 증대 및 가족의 행복 증대, 커뮤니티 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 등의 물리적 측면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여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Table 2. The Elements of the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Author (Year)	Elements
Kang, S. (2007)	Physical conditions(facilities, equipment, physical environment, etc.), Social networking
KWDI (2007)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s

2.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역할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은 노인과 유아동에 대한 돌봄 및 여가문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가족친화 주거환경은 ‘사회적 돌봄’과 ‘여가문화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우리사회는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을 가족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하였으나, 가치관 및 사회변화로 인해 더 이상 돌봄(자녀 돌봄과 노인부양)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돌봄의 패러다임은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돌봄에서 국가 및 지역 커뮤니티와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을 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돌봄 시설 및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적 서비스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며, 자녀와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한국여성개발원(2005)에 따르면, 돌봄이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 변화한데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증가 등 사회 및 가치관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이중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여성지위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가족 내에서 돌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돌봄의 주역할자가 부재하고 이로 인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가족 즉 여성만이 돌봄의 주역할자로서 존재하기는 어려워지며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서 국가 및 지역 커뮤니티가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일 것이다.

여성 취업,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발생하게 된 가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지역의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족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im, 2011). 이런 공동체 가족은 약해진 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의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웃

및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가족의 등장으로 커뮤니티 의식과 활성화는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가족의 개념 또한 점차 지역 커뮤니티로 확대되고 있다. 가족의 유대와 지역 커뮤니티 의식과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끼리 혹은 이웃과 함께하는 여가문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가족여가인프라는 가족여가문화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지역 내 서비스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보건복지부, 2009). 즉,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문화를 영위할 수 있고,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여가·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은 ‘사회적 돌봄’기능과 ‘여가문화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본 연구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시설은 ‘돌봄 시설’과 ‘여가문화시설’로 구분하고, 프로그램은 ‘돌봄 프로그램’과 ‘여가문화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보건복지부(2009)는 가족친화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돌봄과 여가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 커뮤니티 인프라 서비스로 ‘아동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공연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지역도서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2007)은 가족친화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돌봄과 여가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주거환경 지역 커뮤니티의 인프라 서비스로 아동을 위해서는 ‘보육/학교’, ‘놀이터/공원’, ‘도서관’, ‘문화예술공연장’,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성인을 위해서는 ‘공원’, ‘아동보육

Table 3.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s as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Division	Content
Facilities	Care facilities Day nursery facilities, Part-time and night-nursery facilities, After-school child care facility, After-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Elderly care facilities,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Library, Youth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Senior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Resident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Children's outdoor play area, Family Park, Outdoor exercise and relaxation space
Program	Care program Domiciliary Care program and traveling nursing program, Baby & child and elderly Care Program,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local residents network program
	Leisure and culture program Resident Education Program, Youth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Senior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Family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Family counseling program

시설 및 노인돌봄시설’, ‘가족여가 프로그램’,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지원 및 일자리’, ‘편리한 교통’, ‘공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자원으로 ‘돌봄지원’과 ‘여가문화지원’이라는 기준 하에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Table 3>.

### III. 연구 결과: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평가 및 개선방향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이하 연령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가족친화주거환경개념으로 평가하고 향후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의 월평균 소득, 가족구성 등 인구학적 특성과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거주기간 등 주거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6.0세이며, ‘31세~35세 이하’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6~40세 이하’가 27.0%, ‘41세 이상’이 23.3%, ‘30세 이하’ 14.1% 순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주로 ‘31~4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이 25.8%, ‘300만원 미만’이 23.3%,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는 ‘취업’이 51.5%, ‘비취업’이 38.0%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으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2세대 핵가족이 8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된 3세대 확대가족이 14.6%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형태로는 아파트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세대 및 연립이 23.6%, 단독주택이 9.2%, 주상복합이 8.0%, 오피스텔이 1.8% 순이었고, 주택규모는 평균 33.89평이었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5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세가 38.0%, 월세는 6.2% 순이었다. 현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평균 거주기간은 4년 8개월이었다.

#### 2.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지역 커뮤니티 평가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현재 지역 커뮤니티 평가,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에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현재 지역 커뮤니티 평가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 커뮤니티

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도와 돌봄(양육, 교육, 가족지원 등) 관련 지원과 여가문화(여가, 커뮤니티 형성 기회 등) 관련 지원을 하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요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4점으로 조사하였고,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의 인식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90점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거환경이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2.48점으로 현재 주거환경은 가족친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낮으며,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4. Local Community Evolution as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N: 163)

	M	S.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in current residence	2.90	0.60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of awareness in current residence	2.48	0.71

가족친화 주거환경에 인식도에 따른 주거환경의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현재 커뮤니티 평가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답변한 집단을 가족친화 주거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A집단)과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집단을 가족친화 주거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B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t-test한 결과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현재 주거환경을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A집단의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3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현재 주거환경을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B집단의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59점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주거환경이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Table 5.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Awareness (N: 163)

	N	M	S.D	t
A group	92	3.39	0.58	4.18*
B group	63	2.59	0.53	

\*p<.05

A group: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high awareness

B group: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low awareness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09)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된다.

따라서 변화된 여성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은 가족구성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된다. 즉,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만족도

(1) 이용 현황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중 돌봄 관련 시설에서는 ‘주간 보육시설’이 82.2%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63.2%), ‘방과 후 보육시설’(52.1%), ‘공부방 등 방과 후 교육시설’(44.8%), ‘건강가정지원센터’(41.1%),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돌봄시설’(31.3%)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녀 돌봄 시설에 대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자녀 보육 및 양육과 관련된 자녀 돌봄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중 여가문화관련 시설에서는 ‘옥외 운동 및 휴게 공간’이 83.4%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공원’(78.5%), ‘어린이 옥외 놀이 공간’(75.5%) ‘도서관’(62.6%),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41.7%), ‘주민 여가문화 시설’(40.5%), ‘노인평생교육원 및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문화시설’(33.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돌봄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동 및 노인 돌봄 프로그램’(36.8%)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가복지 프로그램 및 출장간호 프로그램’과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각각 33.1%로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여가문화관련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48.5%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민교육프로그램’(45.4%),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38.0%),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33.7%), ‘가족 상담 프로그램’(31.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유무에 따라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의 집단간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취업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이란 취업여성을 위해 시작된 개념이지만 취업여성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여성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개발원(2005)은 핵가족체제에서 가족돌봄의 역할은 취업여성뿐만 아니라 비취업여성에게도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한 것과 같이 가족의 돌봄은 여성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Table 6. Usage Family-friendly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 (N: 163)

Division		F	%
Care facilities	Day nursery facilities	134	82.2
	Part-time and night-nursery facilities	103	63.2
	After-school child care facility	85	52.1
	After-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73	44.8
	Elderly care facilities	51	31.3
Facilities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67	41.1
	Library	102	62.6
	Youth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68	41.7
	Senior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54	33.1
	Resident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66	40.5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Children's outdoor play area	123	75.5
	Family Park	128	78.5
	Outdoor exercise and relaxation space	136	83.4
	Domiciliary Care program and traveling nursing program	54	33.1
Care program	Baby & child and elderly Care Program	60	36.8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local residents network program	54	33.1
	Resident Education Program	74	45.4
Program	Youth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55	33.7
	Senior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62	38.0
	Family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79	48.5
	Family counseling program	52	31.9

(2) 만족도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그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중 돌봄 관련 시설의 만족도는 모두 평균 3.0점 이하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주간보육시설’이 2.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2.82점), ‘건강가정지원센터’(2.76점), ‘방과 후 보육시설’(2.64점), ‘공부방 등 방과 후 교육시설’(2.53),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 돌봄시설’(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중 여

Table 7. Satisfaction of the Family-friendly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 (N: 163)

	Division	N*	M	S.D	
Facilities	Day nursery facilities	134	2.98	0.47	
	Part-time and night nursery facilities	103	2.82	0.68	
	Care facilities	After-school child care facility	85	2.64	0.53
		After-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73	2.53	0.55
		Elderly care facilities	51	2.61	0.67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67	2.76	0.70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Library	102	2.78	0.57
		Youth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68	2.63	0.62
		Senior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54	2.69	0.61
		Resident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66	2.67	0.64
Children's outdoor play area		123	2.89	0.75	
Family Park		128	2.98	0.73	
Outdoor exercise and relaxation space		136	3.04	0.68	
Program	Domiciliary Care program and traveling nursing program	60	2.78	0.69	
	Care program	Baby & child and elderly Care Program	54	2.59	0.57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local residents network program	60	2.67	0.63
	Resident Education Program	74	2.65	0.56	
Leisure and culture program	Youth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55	2.60	0.53	
	Senior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62	2.74	0.57	
	Family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79	2.70	0.52	
	Family counseling program	52	2.90	0.64	

\*Each facility and program users were surveyed

가문화관련 시설의 만족도는 '옥외 운동 및 휴게 공간'이 3.04점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가문화관련 시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의 만족도는 '가족공원'(2.98점), '어린이 옥외 놀이 공간'(2.89점), '도서관'(2.78점), '노인평생교육원 및 노인 복지회관 등 노인여가문화시설'(2.69점), '주민 여가 문화 시설'(2.6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돌봄 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모든 프로그램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복지프로그램 및 출장간호 프로그램'이 2.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2.67점, '유아동 및 노인 돌봄 프로그램'이 2.59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Satisfaction of the Family-friendly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 as Women Employment (N: 163)

	Division	Women employment	N	M	S.D	t
Care facilities	Day nursery facilities	EM	70	2.93	0.49	3.208 <sup>ns</sup>
		UEM	49	3.00	0.41	
	Part-time and night-nursery facilities	EM	57	2.72	0.75	8.65 <sup>**</sup>
		UEM	34	2.94	0.54	
	After-school child care facility	EM	51	2.53	0.58	35.96 <sup>***</sup>
		UEM	25	2.88	0.33	
After-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EM	45	2.40	0.58	10.93 <sup>**</sup>	
	UEM	19	2.79	0.42		
Elderly care facilities	EM	31	2.55	0.72	3.37 <sup>ns</sup>	
	UEM	12	2.67	0.49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EM	35	2.69	0.63	0.33 <sup>ns</sup>	
	UEM	19	2.84	0.76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Library	EM	58	2.69	0.63	20.24 <sup>***</sup>
		UEM	32	3.00	0.43	
	Youth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EM	42	2.57	0.63	5.71 <sup>*</sup>
		UEM	16	2.75	0.45	
	Senior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EM	32	2.59	0.67	7.42 <sup>*</sup>
		UEM	13	2.92	0.49	
	Resident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EM	36	2.58	0.50	0.75 <sup>ns</sup>
		UEM	22	2.86	0.77	
	Children's outdoor play area	EM	66	2.71	0.78	4.51 <sup>*</sup>
		UEM	43	3.09	0.68	
Family Park	EM	73	2.86	0.73	0.31 <sup>ns</sup>	
	UEM	41	3.15	0.69		
Outdoor exercise and relaxation space	EM	70	2.87	0.72	0.41 <sup>ns</sup>	
	UEM	51	3.24	0.59		
Care program	Domiciliary Care program and traveling nursing program	EM	37	2.61	0.68	2.34 <sup>ns</sup>
		UEM	14	3.00	0.68	
	Baby & child and elderly Care Program	EM	33	2.48	0.57	3.32 <sup>ns</sup>
		UEM	13	2.69	0.48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local residents network program	EM	38	2.58	0.60	0.28 <sup>ns</sup>	
	UEM	15	2.93	0.70		
Leisure and culture program	Resident Education Program	EM	45	2.56	0.50	0.01 <sup>ns</sup>
		UEM	20	2.80	0.70	
	Youth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EM	33	2.58	0.56	0.89 <sup>ns</sup>
		UEM	13	2.62	0.51	
	Senior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EM	38	2.66	0.58	2.27 <sup>ns</sup>
		UEM	16	2.94	0.57	
Family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EM	44	2.70	0.46	2.41 <sup>ns</sup>	
	UEM	25	2.68	0.63		
Family counseling program	EM	32	2.58	0.56	0.03 <sup>ns</sup>	
	UEM	11	2.55	0.52		

EM: Women employment  
UEM: Women Unemployed  
\*p<.05, \*\*p<.01, \*\*\*p<.001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여가문화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모든 프로그램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인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2.74점), ‘가족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2.70점), ‘주민교육 프로그램’(2.65점), ‘청소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2.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8>. 여성취업유무에 따라 돌봄 관련 시설 중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방과 후 교육시설’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방과 후 교육시설’ 모두 ‘여성 취업 집단’이 ‘여성 비취업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관련 시설 중 ‘도서관’,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 ‘노인여가문화 시설’, ‘어린이 옥외 놀이공간’이 여성 취업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어린이 옥외 놀이공간’은 ‘여성 비취업 집단’은 대체로 만족한데 비해, ‘여성 취업 집단’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여가문화시설’과 ‘노인 여가문화시설’은 ‘여성 비취업 집단’이 ‘여성 취업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개선 방향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필요도와 가족친화주거환경을 위한 주도적 역할 담당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필요도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를 ‘전혀 불필요’ 1점, ‘불필요’ 2점, ‘필요’ 3점, ‘매우 필요’ 4점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중 돌봄 관련 시설의 필요도는 모두 평균 3.0점 이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요구도가 높은 시설은 ‘방과 후 교육시설’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간 보육시설’(3.61점),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3.57점), ‘방과 후 보육시설’(3.55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 돌봄 시설’(3.37점), ‘건강가정지원센터’(3.26점) 순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중 여

Table 9. Need of the Family-friendly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 (N: 163)

	Division	N	M	S.D
Facilities	Day nursery facilities	142	3.61	0.54
	Part-time and night nursery facilities	141	3.57	0.60
	After-school child care facility	142	3.55	0.60
	After-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143	3.66	0.49
	Elderly care facilities	141	3.37	0.54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141	3.26	0.63
	Library	143	3.66	0.49
	Youth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141	3.30	0.61
	Senior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142	3.32	0.54
	Resident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140	3.17	0.69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Children's outdoor play area	143	3.50	0.57
	Family Park	146	3.45	0.55
	Outdoor exercise and relaxation space	144	3.49	0.56
	Domiciliary Care program and traveling nursing program	142	3.23	0.62
Care program	Baby & child and elderly Care Program	142	3.25	0.65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local residents network program	142	3.11	0.64
Program	Resident Education Program	141	3.09	0.68
	Youth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141	3.05	0.70
Leisure and culture program	Senior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142	3.19	0.61
	Family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141	3.26	0.56
	Family counseling program	141	3.01	0.81

성 취업유무에 따라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필요도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 취업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여가 문화 관련 시설 중 ‘도서관’,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이 여성취업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 모두 ‘여성 취업 집단’이 ‘여성 비취업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관련 프로그램 중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여성취업 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 ‘여성 취업 집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비해 ‘여성 비취업 집단’은 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관련 프로그램 중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여성취업유무에 따



Table 10. Need of the Family-friendly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 as Women Employment (N: 163)

Division	Women employment	N	M	S.D	t
	EM				
Day nursery facilities	EM	71	3.63	0.54	1.69 <sup>ns*</sup>
	UEM	57	3.51	0.57	
Part-time and night-nursery facilities	EM	69	3.61	0.65	0.00 <sup>ns*</sup>
	UEM	58	3.48	0.57	
After-school child care facility	EM	70	3.56	0.63	0.30 <sup>ns*</sup>
	UEM	58	3.45	0.60	
After-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EM	69	3.64	0.59	2.12 <sup>ns*</sup>
	UEM	58	3.34	0.62	
Elderly care facilities	EM	70	3.39	0.52	0.73 <sup>ns*</sup>
	UEM	57	3.28	0.56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EM	70	3.29	0.64	2.69 <sup>ns*</sup>
	UEM	58	3.33	0.47	
Library	EM	71	3.70	0.49	4.11 <sup>***</sup>
	UEM	58	3.57	0.50	
Youth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EM	69	3.36	0.62	5.77 <sup>***</sup>
	UEM	58	3.16	0.59	
Senior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EM	70	3.27	0.59	1.77 <sup>ns*</sup>
	UEM	58	3.33	0.47	
Resident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EM	68	3.26	0.59	0.00 <sup>ns*</sup>
	UEM	59	3.10	0.69	
Children's outdoor play area	EM	72	3.58	0.52	1.46 <sup>ns*</sup>
	UEM	57	3.39	0.59	
Family Park	EM	73	3.51	0.56	1.67 <sup>ns*</sup>
	UEM	59	3.37	0.52	
Outdoor exercise and relaxation space	EM	71	3.54	0.53	0.19 <sup>ns*</sup>
	UEM	59	3.41	0.56	
Domiciliary Care program and traveling nursing program	EM	70	3.30	0.60	2.62 <sup>ns*</sup>
	UEM	58	3.09	0.63	
Care program Baby & child and elderly Care Program	EM	71	3.34	0.65	2.40 <sup>ns*</sup>
	UEM	58	3.17	0.63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local residents network program	EM	70	3.30	0.62	9.45 <sup>***</sup>
	UEM	58	2.95	0.58	
Resident Education Program	EM	69	3.13	0.71	2.27 <sup>ns*</sup>
	UEM	58	3.05	0.63	
Youth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EM	70	3.30	0.62	9.45 <sup>***</sup>
	UEM	58	2.95	0.58	
Senior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EM	70	3.27	0.68	16.17 <sup>***</sup>
	UEM	58	3.12	0.46	
Family leisure and cultural program	EM	70	3.31	0.60	7.53 <sup>***</sup>
	UEM	57	3.21	0.49	
Family counseling program	EM	70	3.17	0.80	0.52 <sup>ns*</sup>
	UEM	58	2.84	0.77	

EM: Women employment  
 UEM: Women Unemployed  
 \*p< .05, \*\*p< .01, \*\*\*p< .001

Table 11. The Representatives as Leading Role in 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Division	F	%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the representatives leading role	55	34.4
Residents(families) as the representatives leading role	7	4.4
Local communities and families(residents) as the representatives leading role	98	61.3
Total	160	100.0

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모두 ‘여성 취업 집단’이 ‘여성비취업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주도적 역할 담당자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도적 역할 담당자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1>.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주체로 ‘지역 커뮤니티와 가족(주민)’이 61.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 행정부’가 34.4%, ‘가족(주민)’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여성취업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초등학교 이하 연령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지역 커뮤니티 평가와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개선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거환경은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 요소 인지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거주지가 가족친화 주거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 집단이 가족친화 주거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한 집단에 비해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환경을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는 주로 ‘주간보육시설’,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 등의 돌봄시설과 ‘어린이 옥외 놀이공간’, ‘가족공간’, ‘옥외 운동 및 휴게공간’, ‘도서관’ 등의 여가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유아동 및 노인 돌봄 프로그램’의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현황은 여성 취업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중 ‘옥외 운동 및 휴게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3.0점 이하로, 현재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여성취업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중 돌봄시설에서 시간제야간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방과후 교육시설 등과 여가시설에서 도서관, 청소년 여가시설, 노인여가시설, 어린이 옥외 놀이공간 등에서 비취업주부 집단에 비해 취업주부 집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취업여성과 전업주부 여성의 주거환경과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는 다르다는 Vliet(1988)의 연구처럼,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현재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취업여성의 특성 등을 배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3.0점 이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중 방과후 교육시설, 도서관, 주간보육시설, 시간제 및 야간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는 돌봄시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으로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필요도를 여성취업유무에 따라 보면, 여가시설에서 도서관, 어린이 옥외 놀이공간, 옥외운동 및 휴게공간, 돌봄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에서 취업여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취업 여성은 주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돌봄 시설은 여성취업유무에 관계없이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의 취업여성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취업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한 주도적 역할 담당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취업유무에 상관없이, 가족친화

및 돌봄에 대한 주체가 더 이상 가족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와 국가 및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이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가족책임과 가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의 커뮤니티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와 지자체 및 행정부처의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국가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가족친화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등 ‘사회적 돌봄’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주부로 핵가족의 가족형태가 많이 조사되었다. 이에 자녀양육 인프라에 비해 노인부양의 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음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향후 가족친화 주거환경의 지역 커뮤니티 인프라에 대해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구성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1. 강성태 (2007). 가족친화 환경 조성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 국토해양부 (2006). 미래형 복지인프라 구축방안. 과천시: 국토해양부.
3. 법제처 (20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 보건복지가족부 (2007).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5. 보건복지부 (2009).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6. 서울시 (2013). 서울보건복지 주요변화 및 시민의식 분석현황. 서울: 서울시.
7. 여성가족부 (2006). 가족친화마을 환경 개념 및 평가 지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8. 여성가족부 (2007). 가족친화환경설계기준. 서울: 여성가족부.
9. 조한혜정 (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서울: 또한이문화.
10. 통계청 (2011). 인구동향조사 집계출산율.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여성개발원 (2005). 가족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녹색성장을 향한 가족친화환경조성: 전략과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Cha, S. (2010). A Discussion of the Family-Friendly Village Model and Important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3), 63-76.
16. Jeong, Y. (2011). A Study on the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 Family Friendly Policy. *Home Management*

- Association*, 22(5), 91-100.
17. Park, J. (2010).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Factors o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Married Men/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53-66.
  18. Park, S., Lee, W., Kim, H., & Yu, J. (2009). Study of Living Landscape for the composition of the family-friendly environment. *Journal of Korea Family*, 21(1), 151-174.
  19. Sim, Y. (2011). In Search of “Community Family Model of the 21st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cond Modernity and Individualization Theory. *The journal of Asian Women*, 50(2), 7-44.
  20. Vliet, W. (1988). *Women, housing, and community*. United Kingdom: Avebury Aldershot.
- 

접수일(2013. 10. 27)  
게재확정일자(2013. 12. 10)